

식민지 조선과 정감록

박해선*
assatie@hotmail.com

<目次>

- | | |
|----------------------------|-------------------|
| 1. 문제제기 | 2.3 동양문고 소장본 |
| 2. 1910년대 재조일본인에 의한 정감록 수집 | 2.4 버클리 아사미문고 |
| 2.1 아유가이 후사노신 | 3. 1920년대 정감록 간행본 |
| 2.2 동경대학 오구라 문고 | 4. 과제와 전망 |

主題語: 정감록(Jeonggamrok), 예언(prophecy), 민간신앙(the folk beliefs), 식민지조선(colonial cho-sen), 재조일본인(Japanese Colonialists in the Korean Peninsula)

1. 문제제기

『정감록』은 이씨왕조의 멸망 및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것으로 여겨지는 진인(眞人) 정(鄭)씨의 출현을 골자로 한 조선 시대의 여러 비결을 모은 예언서이다. 『정감록』에 따르면, 지기(地氣)의 쇠퇴와 천운의 이동에 따라 이씨왕조는 그 명을 다하고, 지기가 왕성하고 천운이 도달하는 곳에서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도읍이 새로운 성씨에 의해 세워진다. 그리하여 이씨 왕조의 뒤를 이어 새로이 건설되는 각 왕조의 지리적 위치와 존속 기간 등이 풍수지리 및 도참사상을 바탕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왕조교체기에는 질병의 유행, 병화, 자연재해 같은 처참하고 가혹한 재난이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열 군데의 피난처인 십승지(十勝地)가 제기된다.

이러한 『정감록』은 조선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여러 세력들에 의해 이용되었는데,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여러 변란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며 민중운동에 기여해왔다). 따라서 『정감록』에 관한 선행연구도 『정감록』을 조선 시대의 여러 민중운동·민중사상과 관련지어 그 안에서 『정감록』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정감록』 자체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는 의외

* 리츠메이칸대학 박사후기과정

1) 고성훈(2015)「조선 후기 민중사상과 鄭鑑錄의 기능」『역사민속학』제47호, pp.113-146

로 공백에 가까운 상태이며, 이 문제에 착목한 백승중의 연구²⁾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지금까지는 『정감록』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비결인 감결을 가리키는 협의의 『정감록』과, 『정감록』류의 여러 비결들을 총칭하여 이르는 광의의 『정감록』이라는 이중의 정의가 애매하게 사용되어 왔다. 물론, 예언서라는 텍스트가 가지는 성격상 현존하는 여러 『정감록』 이본(異本)들을 비교 대조하여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파악하여 원본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감록』관련 연구에 있어서 논의의 출발이 되는 『정감록』 텍스트가 근대에 식민지 권력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다시 한번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텍스트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주변을 고찰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백승중에 따르면, 1913년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1864-1944)이 자신이 소장한 것과 총독부 학무과에 소장되어 있는 예언비결들을 비교하여 『정감록』을 편집하였고, 이 아유가이 본을 바탕으로 10년 후에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1886-1934)가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출판하였다. 뒤이어 김용주(金用柱, 1888-1937), 현병주(玄丙周, 1880-1938) 등의 조선인들이 호소이본에 몇가지 비결들을 가감하여 다시 『정감록』을 출판하였다. 백승중은 1920년대 발행된 김용주본이 김용주본과는 달리 비판적 해제나 의도 없이 가장 많은 비결을 수록하고 있어 편집자인 김용주가 민족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러한 김용주본에 대한 총독부가 경계한 결과 1930년 중일전쟁의 발발 이후 정감록에 대한 비판을 침언한 친일파적 경향을 지닌 현병주본이 등장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백승중의 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감록』 간행 및 그에 따른 총독부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점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몇몇 오류가 존재한다. 이하, 본고에서는 1910년 민간의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행해진 조선 고서 및 문헌 수집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정감록』들이 수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1920년대 간행된 『정감록』들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백승중(2013)『한국의 예언문화사』푸른역사, pp.229-260

2. 재조일본인에 의한 정감록 수집

2.1 아유가이 후사노신³⁾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감록의 가장 원형을 이룬 것은 1913년 2월 아유가이 후사노신이 자신의 소장본과 총독부 학무과에 소장된 비결들을 비교하여 편집한 후 해제를 덧붙인 아유가이본이다. 아유가이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총 25종의 비결이 수록되어 있다. 아유가이가 해제에서 「정감록이란 해좌구책(海左龜策) 또는 동국지리약론(東國地理略論) 등의 명칭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아유가이가 동명의 서적들을 입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유가이는 자신의 소장본을 총독부 학무과 소장본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총 8군데의 메모로 남겨두었는데, 이 메모로부터 당시 총독부 학무과가 소장하고 있던 비결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 감결,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역대왕도본궁수, 삼한산림비기
「학무과분실이 소장한 정감록의 기재는 모두 상기한 것과 동일하며 한글자 한구절도 다르지 않음」(14丁表)
- 무학전
「학무과분실이 소장한 무학비기는 무학전, 오백논사, 오백논사비기의 세 종류를 포함함」(14丁裏)
- 도선비결
「학무과분실이 소장한 도선비기와 비교하면, 상기 결구의 奠安이하의 160자는 옥룡자기와 전문 동일」(18丁表)
- 정북창비결
「학무과분실 장서와 전문 동일」(18丁裏)
- 남사고비결
「학무과분실 장서와 전문 동일」(22丁表)
- 남격암산수십승보길지지
「학무국 분실 장서 남사고 비결에 포함되지 않음」(22丁表)

3) 1864년 미야기현에서 출생한 아유가이는 20세때 문부성 급비생으로 선발되어, 동경 외국어학교의 3년 신설된 조선어학과에 입학하여 약 5년간 수학하였다. 1893년말 처음으로 조선에 일어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조선에 도항하였으나 청일전쟁의 발발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해인 1895년 대원군의 원조로 을미의숙을 창설하여 총감독에 임명되었다. 그후 상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을미사변에 관련된 혐의로 인하여 잠시동안 도피생활을 한 후, 1897년 다시 도한한 이래 1902년 한국연구회를 설립하여 고대사, 신라어, 화랑, 고려 도자기등에 조선에 관한 연구를 남겼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雜攷』(1934)가 있다. 아유가이에 대해서는 井上学(1969) 「槐園・鮎貝房之進について」 『朝鮮研究』82, pp.50-63; 同「槐園・鮎貝房之進について 上」 『朝鮮研究』84, pp.55-63 ; 同「槐園・鮎貝房之進について 下」 『朝鮮研究』85, pp.46-52를 참조.

- 서산대사비결

「학무국 서산대사비결과 동일」(23丁裏)

- 경주이선생가장결

「학무과분실 서계가장결과 동일, 삼도봉시, 서계이선생가장결을 포함」(27丁裏)

이 메모를 바탕으로 당시 총독부 학무과에 소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비결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는 총독부 학무과에 소장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

<표1> 총독부 학무과 장서

| 아유가이본 | 총독부 학무과 장서 |
|------------------------|--|
| 감결鑑訣 | 정감록鄭鑑錄 |
|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 |
|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 | |
|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 | |
| 무학전無學傳 | 무학비기無學秘記 |
| 오백논사五百論史 | |
| 오백논사비기五百論史秘記 | |
| 도선비결道宣秘訣 | 도선비기道宣秘記 옥룡자기玉龍子記 |
| 정북창비결鄭北窓秘訣 | 정북창비결鄭北窓秘訣 |
|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
| ✕남경암산수십승보길지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止 | |
| 서산대사비결西山大師秘訣 | 서산대사비결西山大師秘訣 |
| ✕도사총비결杜師聽秘訣 | |
| ✕피장처避藏處 | |
| ✕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 | |
| ✕북두류노정기北頭流路程記 | |
| ✕구궁변수법九宮變數法 | |
| 옥룡자기玉龍子記 | |
|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 | 서계가장결西溪家藏訣 삼도봉시三道峰詩 서계이선생가장결西溪李先生家藏訣 |
| 삼도봉시三道峰詩 | |
| ✕무제無題 | |
| 서계이선생가장결西溪李先生家藏訣 | |
|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 | |
| ✕이토정비결李土亭秘訣 | |
| ✕갑오하곡시甲午夏穀詩 | |

2.2 동경대학 오구라 문고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 근무하며 아유가이 등과 함께 조선연구에 몰두하였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장서 중에서도 아유가이본을 필사한 두 권의『정감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일본 동경대학의 오구라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표2> 오구라 문고 정감록 관련 문헌

| | |
|------------------------|--|
| ① 『정감록鄭鑑錄』<L44771-107> | 아유가이 본과 동일 |
| ② 『정감록鄭鑑錄』<L44768-104> | 아유가이 본과 동일 |
| ③ 『감론초勘論抄』<L44770> | 산수론山水論 이정문답록李鄭問答錄 이조력년기李朝歷年記 옥룡자장玉龍子章 무학선사장無學禪師章 성항장性恒章 초암장草庵章 서산장西山章 격암장格庵章 상산장象山章 매산장梅山章 금단장衿丹章 남사고결南師古訣 의상대사장義想大師章 정북창비기편초鄭北窓秘記編草 광악유결光嶽遺訣 도선비결道詵秘訣 낭선비결浪仙秘訣 숙묘조몽작절구肅廟朝夢作絕句 용자장龍子章 초암승제법草庵乘除法 우복동牛腹洞 국조진어팔임國祚盡於八壬 무학비서無學秘書 승지부집勝地附集 서산대사역년기西山大師歷年記 |
| ④ 『감론초勘論抄』<L44769> | ③ 『감론초勘論抄』와 동일 |

① 『정감록鄭鑑錄』

표지에 붉은 색으로 秘자를 쓴 종이가 덧대여져 있으며, 내용은 아유가이본과 동일하다. 『정감록』을 빌려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의 별지 메모가 삽입되어 있다.

정감록을 오랫동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은 몹시 바빠 교합도 하지 못하고 또한 인쇄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 2부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鄭鑑錄永々御貸与被下難有存候本■■■ハ非常ニ多忙■居候為校合も為さず且印刷不明ノ箇所多
く候此二部進呈仕候間御査収被下度候(인용자-■■■은 판독불가)

이 메모에는 연도 없이 2월 10일이라는 날짜만 쓰여져 있으며, 수신인은 오구라 신페이, 발신인은 제1과 장기(張基)로 되어 있다. 이 메모의 발신인이 1916년부터 1920년까지 조선총독부 내무부 제1과에서 촉탁으로 근무한 장기창(張基昌)일 가능성이 있으나 단언키 어렵다. 분명한 것은 오구라가 소장하고 있던 『정감록』을 빌려 누군가가 다시 『정감록』을 편집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② 『정감록鄭鑑錄』

책 마지막장에, 오구라 본인에 의한 필사기 「아유가이 후사노신씨 장본을 복사함 대정2년 3월(右鮎貝房之進氏藏本ニヨリ複寫ス 大正二年三月)」을 확인할 수 있다. 아유가이본이 작성된 것이 1913년 2월임을 감안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감론초勘論抄』

겉표지에는 붉은 색으로 秘라는 글씨의 인장이, 겉표지 뒷면과 첫장에는 각각 동경제국대학 도서관 및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언어학연구실의 장서인과 오구라 장서인이 찍혀져 있다. 서문을 통해 본서는 1916년 12월 25일에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경시였던 스기야마 노보루(杉山鰐)에 의해서 편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육군 헌병 중위 출신으로 평안남도 지역에서 경찰직을 맡았던 그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십여년동안 『정감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대신 『역세요람(歷歲要覽)』 『조선실감(朝鮮實鑑)』 『석서(石書)』 『감론초(堪論抄)』의 네 권을 손에 넣었다고 한다⁴⁾. 이 네 권을 임의로 편집하여 『감론초(堪論抄)』라고 명명한 것이 바로 이 서적이다. 본문 중간중간에 지리법상의 용어나 조선 역사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주석을 달아 해설을 덧붙인 것이 눈에 띈다. 그 중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는 「산수론山水

4) 杉山鰐(1916)『감론초』1-2丁

論」은 후술할 김용주본에 실린 「역세요람歷歲要覽」과 거의 동일하며, 따라서 「역세요람歷歲要覽」을 초록하여 삽입하는 과정에서 스기야마가 임의로 붙인 제목으로 보인다.

④ 『감론초勘論抄』

L44770와 동일한 텍스트이나, 서문이 결락되어 있어 필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겉표지 뒷면과 첫장에는 각각 동경제국대학 도서관 및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언어학연구실의 장서인, 오구라 장서인이 찍혀져 있다.

2.3 동양문고 소장본

동양문고는 1924년 미즈비시 기업의 3대 총수인 이와사키 히사야가 설립한 동양학 전문도서관으로써, 식민지 시기에 국외로 유출된 조선 고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다. 특히 마에마쿄사쿠(前間恭作, 1868-1942)의 재산루 장서가 유명하다⁵⁾.

<표3> 동양문고 정감록 관련 문헌

| | |
|-------------------------------------|---|
| ① 『정감록鄭鑑錄』<VII-3-99> | 아유가이본과 동일 |
| ② 『정감록鄭勘錄』<VII-3-121> | 요람약세要覽略歲 |
| ③ 『정감록鄭鑑錄』<VII-3-132> (■은 판독불가능) | 지리문답地理問答 궁궁을을촌락노정기弓弓乙乙村落路程記 명심대사비전明心大師秘傳 강씨유진康氏遺盡 추후계정追後計程 우복동노정기牛腹洞路程記 마한동지도馬韓洞地圖 마한동노정기馬韓洞路程記 옥계동광명■노정기玉溪洞光■路程記 여진성노정기女眞城路程記 봉암노정기鵬岩路程記 계룡산석면제시鷄龍山岩面題詩 금강산신로■전시金剛山神老■傳時 마한동석비시馬韓洞石碑詩 만탑시萬塔詩 |

5) 백진우(2012)「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 -자료 개관·연구 현황·연구 과제·특징적 면모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36, pp.33-70

| | |
|-------------------------|--|
| | 신희귀수이대복선神護鬼守以待福善 패리법敗利法 곡재하방도穀在何方圖 겁인래하월도劫人來下月圖 심로尋路 십이월장역수법十二月將逆數法 심로법尋路法 |
| ④ 『참서류취識書類聚』<VII-3-114> | 옥룡자담문玉龍子答問 오도자비결吳道子秘訣 정순옹결鄭淳翁訣 초암결草庵訣 격암비결格庵秘訣 상산결象山訣 태조문운우무학太祖問運于無學 토정비결土亭秘訣 우요결又要訣 숙묘조분중시肅廟朝分中詩 성항性恒 순옹비결淳翁秘訣 금단결衿丹訣 의상결이씨말은義相決李氏末運 옥룡자오언시玉龍子五言詩 우비전又秘傳 낭선비결浪仙秘訣 정이문답鄭李問答 십승지十勝地 정이논결鄭李論訣 격암결格庵訣 무학대사추론부無學大師追論賦 옥룡자전기玉龍子傳記 동국팔도요결東國八道要訣 서왕비결西王秘訣 동국분야기東國分野記 연평連評 기잡설記雜說 남사고십승지론南師古十勝地論 서산결西山訣 팔역문八城門 유정문답柳鄭問答 논승지록論勝地錄 |

① 『정감록鄭鑑錄』

겉표지에 平間堂으로 추측되는 원형의 장서인이 찍혀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장서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② 『정감록鄭勘錄』

①과 동일하다.

③ 『정감록鄭鑑錄』

시데하라 타이라(幣原坦)의 장서인이 찍혀져 있으며, 시데하라 타이라가 1941년 기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④ 『참서류취識書類聚』

마에마 교사쿠의 장서인이 찍혀있으므로 마에마 교사쿠 장서임을 알 수 있으며, 소장 시기는 오구라 신페이가 1911년 작성한 『재산루서목(在山樓書目)』에서도 서명이 발견되므로 1911년 이전 시기 입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09년 설립된 조선고서 간행회에서 편찬한 『조선도서목록』에서도 『참서류취識書類聚』의 서명을 확인가능하다⁶⁾.

2.4 버클리 아사미문고

아사미 린타로우(淺見倫太郎, 1869-1943)이 20세기 초 한국에서 수집한 한국 고서들은 미츠이를 경유하여 1950년에 현재 버클리대학의 동아시아도서관측에 판매하였고, 현재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로 불리고 있다⁷⁾.

6) 사쿠오 춘요(釈尾春苒)는 『조선도서목록朝鮮古書目録』의 서문에서 이 목록이 「모리스 꾸랑의 조선도서 해제, 문헌비고, 해동역사등의 문예고등, 총독부의 도서목록, 이왕가의 도서목록, 외국어학교경성지부 발행의 한적목록, 그 외 시데하라, 가나자와, 마에마, 아사미, 카와이, 그 외 여러 사람의 장서목록을 참조(クーランの朝鮮書籍解題、文献備考、海東譯史等の文芸考等、総督府の図書目録、李王家の図書目録、外國語学校京城支部発行の漢籍目録、其他幣原、金沢、前間、浅見、河合、諸家の蔵書目録を参照)」하여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釈尾春苒(1911)「序」『朝鮮古書目録』朝鮮古書刊行会).

7) 오용섭(2006)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의 선본」 『서지학보』 제30호, p.281

<표4> 아사미 문고 정감록류 문헌

| | |
|----------------|--|
| 제가비설諸家秘說<33.5> | 이정구산론李鄭求山論 이정유산론李鄭遊山論 궁궁을을법弓弓乙乙法 호남승지湖南勝地 외교문답外教問答 칠언고결七言古訣 고결古訣 세록世祿 원효자의상두사비전元曉子義相杜師秘傳 무학순자론無學順字論 남격암십승지론南格庵十勝地論 토정비결土亭秘訣 계산가거지溪山可居地 고비결古秘訣 옥룡자문답玉龍子問答 도선비기道詵秘記 토정편년土亭編年 |
|----------------|--|

『제가비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후술하겠으나 1923년 간행된 김용주본에 유일하게 수록된 여러 비결들과 중복되는 비결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효자의상두사비전」은 제목이 약간 변경되어 「신효자의조사비전」으로, 「무학순자론」은 「감인록」으로, 「외교문답」은 「교외문답」으로, 「칠언고결」은 제목의 변경없이 원제대로 김용주본에 수록되었다.

1910년대는 한일합병을 계기로 본격적인 식민지통치가 시작되었던 시기이며 총독부는 통치방침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조선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총독부 직속기관인 취조국에 의한 구관제도조사사업⁸⁾이나 학무국의 민요 속담 및 통속적 讀物조사 및 전설 동화의 조사⁹⁾, 지방국의 고적조사사업등이 바로 이 시기에 진행되었다. 이후 1912년에는 취조국의 관할사업인 고서수집과 규장각 도서정리, 해제 및 번역 작업 참서관실로 이관되었다¹⁰⁾.

조선도서는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서명만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렵고, 또 서적에 대한 해제도 없으므로, 취급상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취조국에서는 명치44년(인용자 1911년)부터 도서정리부속사업으로서 본부가 소장한 조선 도서 일철의 해제를 작성하는 계획을

8) 朝鮮總督府中樞院(1938)『朝鮮旧慣習制度調査事業概要』

9)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저,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자(2012)『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선풍집 자료총서4 전설동화조사사항』제이앤씨, p.7

10) 김태웅(1993)「191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서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규장각』16

세웠는데, 명치45년(인용자-1912년)에 참서관실로 이 사업을 이관한다.

朝鮮図書は未だ広く世に知られざるを以て、其の書名のみに依りて直に其の内容を知り得るもの尠く、又之を解題したるものなきを以て、之が取扱上不便尠からず。仍て取調局に於ては、明治四十四年より図書整理附属事業として、本府所蔵の朝鮮図書一切の解題を作成する計画を樹てしが、明治四十五年参事官室に其の事務を移管せり¹¹⁾

동일한 시기 민간의 재조일본인 사이에서는 연구회를 결성하여 조선에 대한 사정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조선 문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선의 문헌수집과 고서 간행사업을 시작하였다¹²⁾. 통감부나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조직된 대표적인 연구회로는 조선고서간행회, 조선연구회, 자유토구사, 서물동호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아유가이나 오구라, 시데하라, 마에마, 아사미는 연구회의 초기 멤버로써 서로 교류하며 장서 수집이나 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총독부의 정책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총독부 사업과 민간의 재조일본인들에 의한 학술활동은 서로 상관성을 가지며 진행되어 있었으며, 아유가이의『정감록』해제 작업 역시 상술한 맥락 속에 위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1910년대 발굴된 정감록류의 문헌들은 조선 고서 연구의 맥락에서 분석되었으며 비공개에 부쳐졌다. 그러나 3·1 운동의 발발과 『정감록』을 모태로 하는 신종교집단들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정감록은 세상에 공개되게 된다.

3. 1920년대 『정감록』 간행본

최초로 정감록을 간행한 호소이 하지메 또한 상술한 재조일본인들의 조선연구회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조선으로 도향하여 조선연구회를 설립했으나 이전의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한 경력이 문제시되어 1년 남짓한 체류 이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신문사, 아사히신문 등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였다. 일본에서 3·1운동의 소식을 들은 호소이는 중대한 사명감을 깨닫고 1919년 4월부터 약 삼개월에 걸쳐 조선과 중국을 여행하며 특히 조선을 좀먹는 「암(癌)」을 목도한다¹³⁾. 그 후 조선사회의 「암(癌)」

11) 朝鮮總督府中樞院(1938)『朝鮮旧慣習制度調査事業概要』、pp.40-44

12) 최혜주(2016)「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문헌수집과 연구 활동」『대동한문화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pp.363-389

13) 「대정8년3월1일, 독립만세소동의 돌발을 동경에서 들었을 때, 나는 내 일생의 사명이 명확하게 주어진 것을 보았다. 소동 이후 즉시 남북지나(南北支那)지방을 주유하고 돌아오는 길에, 조선의 사태를 관찰하며 그곳에서 시시각각 소리도 없이 국운과 민명(民命)을 침식해가는 악질의 암을 확실히 눈으로 볼

을 제거하기 위해 1920년에는 조선관계의 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인 자유토구사를 설립하여 『통속조선문고』, 『선만총서鮮滿叢書』 등을 간행하였다¹⁴⁾. 이러한 출판 사업은 3·1운동을 일으킨 조선 민족성의 분석을 통해 식민통치와 경영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내선 일체나 동근 동조론같은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는데 있었다¹⁵⁾. 특히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쿄에서 조선인으로 오해받아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은 내지연장주의를 주장하는 호소이에게 크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후 호소이는 일본과 조선 곳곳을 순회하며 강연을 열성적으로 행하였다.

호소이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実)조선 총독에게 약 320통에 달하는 대량의 서간을 남기고 있는데 이 서간들에서는 조선독립운동을 파괴하기 위한 제안이나 친일단체·인물의 육성 및 지원, 조선총독부 시정 선전에 대한 강화를 주장하였다. 그 중 1922년 8월 28일자 서간에서는 『정감록』의 간행 준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며, 완성된 『정감록』을 행정문서로써 전국에 배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요즘 이조시대의 금단의 비서(秘書)인 정감록 간행에 대해 극히 다방합니다. 정감록을 정독해보니, 회대의 우서(愚書)인데 이런 것을 종자로 삼아 종래의 여러 악행들이 벌어진 것은 극히 유감입니다. 따라서 실로 정감록이 천하에 돌도 없는 우서(愚書)인 이유를 원고지 오십 매 정도 휘갈겨쓰고 있습니다. 제본이 완성된 이후에는 한번 봐주시길 바라며 제가 쓴 소논문들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해서 이를 권두에 실고 원서(유사고본 및 제가의 비설을 병기할 것)는 한문으로 하여 전도(全道)에 배부한다면 행정상 몹시 뛰어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공자의 금상(金像)을 섬기는 유학운동보다도 훨씬 유효할 것으로 여겨지며 조선 전도의 국장 및 면장에게 대략 5, 6천부를 배부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昨今李朝時代の禁斷の秘書たりし鄭鑑録刊行について多忙を極め居り精読するに稀代の愚書にて斯るものを種に従来いろ／＼の悪事行はれたるは遺憾ニ御坐候 仍て苟天下無嘗の愚書たる所以を原稿紙五十枚ばかり書きなぐり申候製本出来後御目ニ懸け候得共小生の小論文を漢諺訳し、之を巻頭ニ置き原書(擬似稿本並びに諸家の秘訣併せ掲げ申候)ハ漢文にて全道へ配布致し候ハ行政上非常ニ良き結果を得る事と存候孔子の金像を拝する儒学運動よりも余程有効と存じ候が全道局所長面長まで大凡五六千冊御配布の事如何に候哉¹⁶⁾

수 있었다(大正八年三月一日、独立万歳騒擾の突発を東京に在りて耳にした時、私は私の一生の使命が、明らかに示されたのを見た。騒擾後直ちに南北支那を周遊しての帰途、朝鮮の事態を観察し、そこに刻々に音もなく国運民命を蝕み行く悪質의「癌」を明さまに眼に見ることができた。)(細井肇(1924)「序文」『朝鮮文学傑作集』奉公会、p.3)

14) 호소이 하지메에 관해서는 다카하시 소지 지음, 최혜주 번역(2010) 『일본망언의 계보』 한울 아카데미; 青野正明(1988) 「細井肇の朝鮮観」 『韓』 第110호를 참조하였다.

15) 김효준(2016) 「3.1운동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감수 「홍길동전」 번역 연구: 홍길동 표상과 류큐정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翰林日本學』 28, pp.115-145

그러나 이 제안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완성된 『정감록』은 1923년 2월 호소이가 경영하던 자유토구사의 『선만총서』시리즈의 제7권으로서 동경에서 출판되었다. 구성은 권두에 50페이지에 달하는 호소이의 정감록 비판 논문 「정감록의 검토鄭鑑錄の檢討」¹⁷⁾를 배치하고, 「감결」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역대왕도본궁수」 「삼한산림비기」의 원문과 일본어번역 및 21종의 비결 원문, 마지막으로 유사고본으로 이루어졌다. 정감록의 일본어 직역 및 교정은 시미즈 켄키치(清水健吉)가 담당했으며, 호소이는 원서와 유사고본을 비교해 주해를 달았다.

호소이의 조선고서 번역-특히 문학을 중심으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공통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호소이가 텍스트에 대한 생략과 고쳐쓰기 등을 통해 텍스트에 개입함으로써 부정적인 조선인론을 생성해왔다는 점이다. 특히, 김효순은 호소이가 행한 일련의 작업들이 단순히 조선에 대한 전근대성의 강조나 혹은 부정적인 조선·조선인관을 생성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이며 정치적인 행위였음을 밝혀냈다¹⁸⁾. 그렇다면 『정감록』에 있어서도 호소이의 개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감결」 중 「곡식의 종자는 삼풍에서 구하고 사람의 종자는 양백에서 구한다(求穀種於三豐求穀人種於兩白)」는 구절은 다가올 말세적 위기를 피해 몸을 보신할 수 있는 십승지를 암시하는 구절로서 20세기 초 유행했다. 특히, 양백에서 구한다는 구절을 백두산 혹은 장백산으로 풀이하여 간도로 이주하는 인구들이 많았다¹⁹⁾. 그런데 호소이본에서는 이 구절이 「구곡종치양백(求穀種處兩白)」으로 생략·변경되어 있다. 위 구절을 아유가이본이나, 김용주본, 현병주본에서는 모두 「求穀種於三豐求穀人種於兩白」로 실려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호소이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호소이본의 등장 이후, 조선인에 의한 『정감록』 간행이 이어졌다. 1923년 3월 19일 한성도서 주식회사에서 간행한 김용주본²⁰⁾과 같은 해 근화사에서 간행한 현병주본이 그것이다²¹⁾. 1920년대에 간행된 『정감록』들에 수록된 비결은 이하와 같다.

16) 『齊藤実文書』「書簡その二部」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17) 호소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鄭鑑錄の書名と著者 / 讖緯の学とは何ぞや / 鷄龍山と鄭氏 / 陰陽五行の由来 / 根拠なき禍祥災異の説 / 不合理なる惑説 / 朝鮮民族と迷信 / 時、所、事の錯倒惑雜 / 半島の山運数勢と民族性 / 鄭氏の代に仏教復興を望む / 李氏一家の脅迫觀念 / 大方の諒恕を乞ひ併せて乘示を仰ぐ / 人物小伝

18) 김효순(2016) 「3.1운동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감수 「홍길동전」번역 연구: 홍길동 표상과 류큐정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翰林日本学』28

19) 「정감록不足信」 『황성신문』1899년 12월 19일

20) 안춘근 편(1973) 『정감록집성』 아세아문화사, pp.481-658

21) 장연연에 따르면, 현병주의 『(批難)鄭鑑錄眞本』은 1923년 權花社에서 최초 간행된 후, 1926년에 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다시 간행되었다고 한다. 백승종은 文友館에서 간행된 현병주본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문우관은 현병주 본인이 운영하던 서점으로써 주로 조선 고서를 출간하였다고 한다(장연연(2015) 「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5-21)

<표5> 1920년대 정감록 간행본 수록 비결

| 호소이본 | 김용주본 | 현병주본 |
|--|--|--|
| 감결鑑訣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 장비록徵秘錄 운기구책運奇龜策 | 감결鑑訣 동국역대기수본궁음양결 東國歷代氣數本宮陰陽訣 역대왕도본궁수 歷代王都本宮數 |
|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 | 요람역세要覽歷歲 동세기東世記 | 삼한산림비결三韓山林秘訣 무학전無學傳 |
| 무학전無學傳 오백론사五百論史 오백론사비기五百論史秘記 | 동차결東車訣 무망론無忘論 삼척국기로정기三陟局基路程記 | 오백론사五百論史 오백론사비기五百論史秘記 도선비결道宣秘訣 정북창비결鄭北窓秘訣 |
| 도선비기道詵秘記 | 감결鑑訣 |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남경암산수십승보길지지 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止 |
| 정북창비결鄭北窓秘訣 | 역대기수본궁음양결 歷代氣數本宮陰陽訣 | 서산대사비결西山大師秘訣 |
|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남로암산수십승보길지지 南路菴山水十勝保吉之止 | 역대왕도본궁수歷代王都本宮數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 | 사사충비결社師聰秘訣 피장처避藏處 |
| 서산대사비결西山大師秘訣 사사충비결社師聰秘訣 피장처避藏處 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 북두류노정기北頭流路程記 구궁변수법九宮變數法 | 무학전無學傳 오백론사五百論史 동비기同秘記 도선비결道宣秘訣 정북창비결鄭北窓秘訣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 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 북두류노정기北頭流路程記 구궁변수법九宮變數法 옥룡자기玉龍子記 경주이선생가장결 慶州李先生家藏訣 삼도봉시三道峰詩 무제無題 |
| 옥룡자기玉龍子記 | 남경암산수십승보길지지 南敬菴山水十勝保吉之止 서산대사비결西山大師秘訣 |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 이토정비결李土亭秘訣 |
| 경주이선생가장결 慶州李先生家藏訣 삼도봉시三道峰詩 | 사사충비결社師聰秘訣 피장처避藏處 | 서계이선생가장결 西溪李先生家藏訣 갑오하곡시甲午夏穀詩 |
| 서계이선생가장결 西溪李先生家藏訣 | | |
|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 이토정비결李土亭秘訣 갑오하곡시甲午夏穀詩 | 화악노정기華岳路程記 북두류노정기北頭流路程記 구궁변수법九宮變數法 | |

| | | |
|------------------|----------------------|--|
| <유사고본> | 옥룡자기玉龍子記 | |
| 비결秘訣 | 경주이선생가장결 慶州李先生家藏訣 | |
| 일행사설一行師說 | 삼도봉시三道峰詩 | |
| 현지선견玄知先見 | 서계이선생가장결 西溪李先生家藏訣 | |
| 정순옹결鄭淳翁訣 |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 | |
| 초암결草庵訣 | 이토정비결李土亭秘訣 | |
| 낭선결 浪仙訣 | 갑오하곡시甲午夏穀詩 | |
| 옥룡자시(오음)玉龍子詩(五音) | 감인록鑑寅錄 | |
| 옥룡자청학동결玉龍子靑鶴洞訣 | 교외문답敎外問答 | |
| 도선왈道詵曰 | 칠언고결七言古訣 | |
| 의상대사왈義湘大師曰 | 비지론秘知論 | |
| | 신효자의조사비전 新曉子義祖師秘傳 | |
| | 남격암십승지론南格菴十勝地論 | |
| | 정이감흥론鄭李堪興論 | |
| | 토정묘결土亭妙訣 | |
| | 오백론사五百論史 | |
| | 호남소전湖南所傳 | |
| | 부담라조선附耽羅朝鮮 | |
| | 십승지十勝地 | |
| | 기타가장처其他家藏處 | |
| | 산록집설散錄集說 | |
| | 말속론末俗論 | |
| | 도선비결道詵秘訣 | |
| | 청구비결靑邱秘訣 | |
| | 정감문답鄭堪問答 | |
| | 출무록제出無錄題 | |

가장 많은 비결을 수록한 정감록은 약 60종의 비결을 수록한 김용주본²²⁾이다. 백승중은, 정감록에 대해 가치평하적인 비판을 덧붙인 현병주와는 달리 아무런 부언설명없이 가장 많은 비결을 수록한 김용주에 대해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²³⁾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용주는 당시 경기도 참여관이었던 김윤정의 장남로, 9세때 공사관

22) 안춘근 편(1973)『정감록집성』아세아문화사, pp.481-658

23) 백승중(2012)『정감록 미스터리』푸른역사, pp.121-140

서기생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도미하여 대학교까지의 교육을 끝내고 1921년 조선으로 귀향한 인물이다²⁴⁾. 조선 귀국이후에는 매일신보의 자매지인 영자신문 서울프레스사에서 근무하였다²⁵⁾. 또한, 끝내 이혼으로 이어지기는 하나 식민지조선에서 최초로 내지인과 결혼하여 내선 융화를 구현하기도 하였다²⁶⁾.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김용주는 일상 회화는 가능하나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만큼의 수준은 못되었으며 더욱이 한문학적 소양을 지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용주본은 김용주 본인에 의해서 작업된 것이라기 보다는 식민지권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집 및 편집을 거친 원고를 당시 지식인으로 알려졌던 김용주의 이름만을 빌려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김용주본이야말로 당시 총독부를 포함하여 식민지권력이 어떤 경로로건 소장하고 있었던 비결의 총집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김용주본에 유일하게 포함된 여러 비결들은 오구라 신페이나 아사미 린타로우의 소장본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현병주본 역시 3년에 간행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현병주의 생애와 저술 활동은 그의 민족주의적·계몽주의적 지향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감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그를 호소이의 뒤를 잇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1923년 호소이본의 최초 간행 이후, 뒤이은 김용주본과 현병주본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뒤바뀌어야 할 것이다.

4. 과제와 전망

본고에서는 먼저 식민지시기 간행된 정감록이 1910년대 민간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연구 및 문헌 수집을 배경으로 탄생되었다는 전제 하에 당시 총독부 및 재조일본인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정감록』 및 『정감록』류 문헌의 소장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수집되어 비밀리에 다루어지던 『정감록』들이 1920년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간행되는 과정과 그 주된 편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김용주와 현병주의 생애와 성격을 분명히 하여, 종전의 인식과 달리 김용주본이 오히려 가장 식민지권력이 보유하고 또 공개하고자 했던 『정감록』의 형태에 가장 유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24) 「高警 제28574호 電受 12707호 米國歸來鮮人の言動에 관한 건」에 기록된 김용주의 집주소와 서지정보에 수록되어 있는 저자 주소가 경성 통의동 69번지로 동일함으로 김윤정의 아들로서 장기간 미국에서 수학하여 귀국한 김용주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25) 「『서울프레스』主筆 金用柱氏長逝 十日葬儀舉行」『매일신보』1937년4월7일

26) 「사간: 金 參議官의 令息과, 화족의전을 거행하는 산중씨 영양, 신부는 조선사정에 통달한 규수다」『매일신보』1922년1월27일; 「盛大한 結婚式, 조선호텔에서, 피로연까지 개최」『매일신보』1922년1월30일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주본을 통해서 식민지권력이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호소이본의 경우 의도적인 구절의 삭제는 확인할 수 있으나 김용주본에서는 가장 많은 종류의 비결이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특색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당시 유통되었던 비결을 집대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문헌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대일신보』
 『황성신문』
 『齊藤実文書』
 朝鮮總督府中樞院(1938)『朝鮮旧慣習制度調査事業概要』
 積尾春茂(1911)「序」『朝鮮古書目錄』朝鮮古書刊行會
 細井肇(1924)「序文」『朝鮮文学傑作集』奉公會
 다카하시 소지 지음, 최혜주 번역(2010)『일본망언의 계보』한울 아카데미
 백승중(2012)『정감록 미스터리』푸른역사
 _____(2013)『한국의 예언문화사』푸른역사
 안준근 편(1973)『정감록집성』아세아문화사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저,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편자(2012)『식민지시기 일본어 조선선헌집 자료총서4 전설 동화조사사항』제이앤씨
 김태웅(1993)「191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부의 취조국·참서관실과 ‘기관제도조사사업」『규장각』16
 김효순(2016)「3.1운동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감수 「홍길동전」 번역 연구: 홍길동 표상과 류큐정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翰林日本學』28
 백진우(2012)「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 -자료 개관·연구 현황·연구 과제·특징적 면모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36
 오용섭(2006)「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의 선본」『서지학보』제30호
 장연연(2015)「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최혜주(2016)「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문헌수집과 연구 활동」『대동한문화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青野正明(1988)「細井肇の朝鮮觀」『韓』第110号
 井上学(1969)「槐園・鮎貝房之進について」『朝鮮研究』82
 _____(1969)「槐園・鮎貝房之進について 上」『朝鮮研究』84
 _____(1969)「槐園・鮎貝房之進について 下」『朝鮮研究』85

논문투고일 : 2018년 01월 02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5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식민지 조선과 정감록

박해선

본고에서는 먼저 식민지시기 간행된 정감록이 1910년대 민간 재조일본인들의 조선 연구 및 문헌 수집을 배경으로 탄생되었다는 전제 하에 당시 총독부 및 재조일본인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정감록』 및 『정감록』류 문헌의 소장 상황을 파악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수집되어 비밀리에 다루어지던 『정감록』들이 1920년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간행되는 과정과 그 주된 편자들을 검토해보았다. 특히, 김용주와 현병주의 생애와 성격을 분명히 하여, 종전의 인식과 달리 김용주분이 오히려 가장 식민지권력이 보유하고 또 공개하고자 했던 『정감록』의 형태에 가장 유사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Colonial Chosun and ‘Jeonggamrok’

Park, Hae-Sun

In this paper, firstly, I analyzed the possession situation of “Jeonggamrok(鄭鑑錄)”, which were acquired by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re-established Japanese at the tim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Jeonggamlok(鄭鑑錄), publish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I reviewed the process of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Jeonggamrok(鄭鑑錄)”, which was collected and secretly handled in the 1920s, and the main editors. In particular, it clarified the life and personality of Yongjoo Kim and Byungjoo Hyun, and suggested that Yongjoo Kim might be the most similar to the form of “Jeonggamrok(鄭鑑錄)” that most colonial power possesses and wants to reveal.